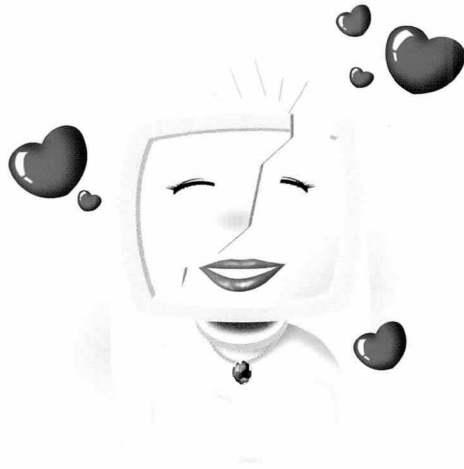


사이버 결혼과 가족해체

김동일/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필자는 예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는 서양인을 의미하는데 이들에게 그들이 본 한국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이 조사 결과 적어도 서양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장점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로 지적된 것은 한국인이 지켜 나가고 있는 튼튼한 가족제도이었으며 이들은 한국인들의 가족주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서양인들이 한국인의 첫째 장점으로 가족을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꼽은 것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오늘날 서구의 선진국들 가운데 이혼율이 50%를 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심각한 가족해체 현상의 문제를 가진 서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이혼을 잘 안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왜 한국인들은 이혼을 꺼려하는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이들은 한결같이 그것은 한국인의 아버지 정신, 즉 자식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이혼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간의 금슬이 꼭 좋아서가 아니고 부

부 사이가 더러 원만하지 못하고 또 갈등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서로 참고 견딘다는 얘기가 된다.

확실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구 사회에 비해 가족 해체 현상이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이혼율은 서서히 상승해 왔고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의 부부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 부부의 경우에도 일단 자녀를 가지게 되면 여하한 부부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혼 문제는 일단 피하려고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한국인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은 아직도 각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양인들은 우리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서양의 가족 관계는 어디까지나 부부 중심의 관계이어서 부부간에 금이 가면 일단 이혼을 고려한다. 자녀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 사이의 현격한 이혼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 사회에서의 가족 해체 현상은 그 도가 지나쳐서 서구 사회를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고, 많은 식자들은 이 같은 가족 해체 문제의 심각성이 더 깊어지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서구 문명 자체의 해체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데에 있다.

적어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백 만년의 긴 세월 동안 인류가 생존해 올 수 있었고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정된 가족 제도의 유지였던 것이다. 가족은 언제나 사회 체계의 기본 단위였고 따라서 안정된 가족 제도의 유지는 사회 안정의 필요 조건이었던 것이다.

물론 인류사회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일부일처제의 가족 제도를 수렵채취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수해 온 것이 바로 이 같은 가족 관계가 가장 완벽한, 이상적 형태이어서만은 아니다. 일부일처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인지 이제까지 존속해온 인류 문화들의 극히 일부분에서는 다른 형태의 성의 결합, 이를테면 일처다부제나 일부다처제, 심지어는 극도로 불안정한 형태로 잠깐잠깐 나타났던 집단혼에서까지 대안을 찾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부일처제가 절대다수의 문화권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택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을 보면 이 가족 구조가 가장 나은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세계 어느 문화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이한 형태의 결혼 관계가 출현한 것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인 이른바 정보화 시대 또는 정보화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 기이한 형태의 결혼이란 소위 “사이버 결혼”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인 즉 현실 세계에서는 일체 서로 만나지도 얘기하지도 않기로 하고 오직 사이버 공간에서만 서로 충실한(?) 부부관계를 가진다는 그런 결혼을 두고 말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각자 기혼 상태인 남녀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체처두고 사이버 결혼을 하면서 그것도 하면 둘이서만 알고 있을 일이지 PC를 통해서 사이버 결혼 서약서를 공개까지 하는 남녀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도대체 이런 것도 결혼이라 할 수 있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결혼관계를 가지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들이나 이들의 사이버 결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펴는 주장, 즉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며, 따라서 현실 세계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사이버 세계에서는 딴 짓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디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설령 그렇더라도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필자의 반응은 단호히 'No' 일 수밖에 없어서 그저 입맛이 씹쓸할 뿐이다.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의사소통도 필경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사상이며 또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 말들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인간 세계의 현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상징적 세계이며 따라서 현실의 본질은 우리가 쓰는 상징과 말로 구성된다. 그러기에 이른바 가상공간이라 부르는 영상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그 말에 서로 동조하면 그것 자체는 또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 된다. 그러기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정신분열의 상태가 아닐 바에야.

그러나 실은 정신분열증 환자도 하나의 세계,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가진다. 문자 그대로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적어도 이중인격자는 아니다. 소위 정상인과는 다른 체계의 세계와 논리적 틀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고대 그리스인의 로고스(logos)라는 어휘는 말이라는 뜻과 이성, 논리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말은 곧 논리이고 이성이며 그것은 곧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현실 세계에서나 사이버 세계에서나 우리가 쓰고 나누는 말은 같은 논리, 같은 이성일진대 이 두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물론 실제로 기혼 남녀가 가상공간이라는 개념을 빌려 다른 배우자를 확보하고 밤마다 달콤한 사랑의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현실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그것은 쉽게 이혼 상태로 치닫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행여나 사이버 결혼이라는 기괴한 성의 결합이 우리의 안정된 가족 제도를 파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